

정치인·권력기관·고위 공무원 출신 편중

광주·전남 상장사 17곳 사외이사 살펴보니

광주은행 지명분 전 의원·광주신세계 김형균 전 광주국세청장 등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3명 이상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 출신.’ 대신배구조연연구소가 최근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2018년 주주총회 임원선임 안건’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소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11개사를 분석, 3대 권력기관 출신 비중이 35.4%로 2016년(31.8%)에 견줘 3.6%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다.

3대 권력기관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검찰과 법원 같은 사법기관, 장·차관 등을 뜻한다. 특정분야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이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게 연구소측 판단이다.

광주·전남 상장법인과 지역 주요 기업들은 어떨까.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은 17개로, 이들 기업 사외이사로 상당수는 정치인·권력기관 출신·관련기관 공무원 등이 올라 있다.

우선, 광주은행의 경우 지명분 전 전남 대총장 및 국회의원이 지난 3월부터 임기 2년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강상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지난 3월부터 임기 1년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한국전력은 지난 3월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창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위원장을 2020년까지 2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대우에이텍 사

외이사로는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지낸 이재호 이사가 2020년까지 2년간 재선임됐다.

대우그룹 계열사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대우위니아의 경우 부장검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성윤환 변호사를 내년 3월까지 1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부국철강은 광주지법 판사 출신의 김영권 변호사가 지난해부터 사외이사에 이들을 올리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신동혁 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박해춘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에는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맡았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지난 3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금호산업은 또 지난 3월 정서진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을 오는

2021년까지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광주신세계에서는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내년까지 3년 임기의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국토부 기술자문위원 등을 지낸 윤관 도시교통기술연구원장은 내년까지 재선임됐다. 이윤연 서영대 부총장도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3년 임기의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남화도건은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노동부 서기관을 지냈던 오병교 광주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을 오는 2021년까지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한전KPS는 오는 1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문태용 전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및 감사를 2년 임기의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보해양조의 사외이사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맡아 활동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3.98 (-5.83)	금리 (국고채 3년) 2.31% (0.00)
↑ 코스닥 850.85 (+23.63)	↑ 환율 (USD) 1080.90원 (+4.40)



광주세관 수출 초보기업 ‘관세교실’

17개 사회적기업 실무자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9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소재 사회적기업은 195개사로 지난해 수출규모는 8개사 2만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광주본부세관은 김치 등 농수산물품 생산업체 11개사를 비롯 총 17개 사회적

기업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 수입, FTA, 환급에 이르기까지 수출 초보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수출입통관, 환급 등 세관 담당자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수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내 사회적기업은 물론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국세청 납세자와 ‘소통의 장’ 이은향 청장 평동산단 방문 상공인 현장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향)은 9일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을 맞아 평동산단입지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부지원 소통의 장을 가졌다.

이은향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사)평동지역기업운영협의회(회장 김보곤) 회원 중소기업인 30여명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한 ‘2018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열린세정’을 적극 추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세금신고·납부가 선순환하는 세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평동지역기업운영협의회 회원들은



광주지방국세청은 9일 오후 광산구 평동산단입지내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은향 청장과 (사)평동지역기업운영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간담회에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고검증 부담 완화 등 세정지원과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주고, 소통의 기회도 자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건의된 내용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소 기술유출 피해 대응전략과 지원

내일 DJ센터서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8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전략 및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청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의 4%상당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으며, 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13억으로 나타나는 등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 우수한 기술

을 개발하고도 기술보호 및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지대책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대책 등을 알릴 계획이다.

산업보안전문가, 변호사, 관계기관* 등이 기술보호전략, 유출사례, 법률 등 실무 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술보호전문가가 중소기업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10대 핵심수칙, 보호전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관계 기술보호 지원기관에서 국내외 특허부터 영업비밀까지 각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상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한국 광산업 중동서 ‘기술 알리기’

LED 무역사절단 마케팅 활동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지역 2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8 중동 LED 무역사절단’을 파견,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실시했다.

9일 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진행된 무역사절단에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내 LED 조명 12개사가 참가했다.

사절단은 ‘수요자연계형 LED조명 글로벌사업화 기반구축 사업’에 따라 중동

현지에 LED 조명 및 LED조명 융합제품 도입을 희망하는 기관 및 대형 LED 조명 프로젝트 추진 시행사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또 사절단 활동과 더불어 중동 내 국내 LED조명 시범설치 사업을 위한 논의도 전개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중동지역 4중 60여개의 가로등, 투광등 및 실외조명을 두바이(항만청), 카타르(문화진흥청)등에 설치하고 1년 간 국내 LED조명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참여하는 4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세 얼굴

“에너지밸리 지역과 동반성장 온 힘”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공감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다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일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임철원(57) 본부장은 “무엇보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될 에너지밸리의 지속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과 지역사회,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신뢰와 소통관계를 구축해야(항만청), 카타르(문화진흥청)등에 설치하고 1년 간 국내 LED조명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참여하는 4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장흥 출신인 임 본부장은 전남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1985년 한전에 입사해 개성지시장, 통영지시장, 본사 구매실장, 갈등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본사와 사업소 주요보직을 거치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2년간 개성지시장을 역임하는 등 대북사업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 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 GOOD! 흡발습 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별단면옥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